

# 음식과 욕망



진성수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음식은 변하는 것

중국요리는 언제 생겨났을까? 짜장면인가, 자장면인가? 중국 사람들은 다리 달린 것 중에서 의자만 빼 놓고는 못 먹는 것이 정말 없나?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간식 중 하나인 떡볶이는 과연 언제부터 만들어 먹었을까? 해방 후일까, 아니면 1980년대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일까? 그것도 아니면 일제 시대부터였을까? 조선시대 사람들도 과연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을까?

조선시대에는 떡이 흔한 음식이 아니었으니 지금처럼 자주 먹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궁중요리 중에 엄연히 떡집과 같은 요리가 있는 것을 보면, 형태와 맛은 조금 달랐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떡볶이와 유사한 음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빨강고 매운 떡볶이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고추가 전래된 17세기 이후에야 가능했을 것이다.

사실 요즘 떡볶이는 빨간색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검은색까지 그야말로 총천연색 떡볶이가 있는 시대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즐겨먹는 음식들은 분명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왔을 것이다. 어려운 인류학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통음식도 시대와 유행에 따라 맛과 모양이 조금씩 변화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여러 건강프로그램 중에 등장하는 한국인의 소금 혹은 설탕 섭취량 통계치만 보더라도 최근 20~30여년 사이에

적어도 2~3배 혹은 그 이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음식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다.

## 자장면과 적자생존

흔히 중국요리는 수많은 이민족의 음식문화를 섞어 놓은 잡종(雜種)문화라고 일컬어진다. 어떤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중국음식점(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요리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함, 별다른 격식이나 위화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 이외에도 본질적인 잡종성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먹는 대표적인 중국음식 자장면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에 한 번쯤 가본 사람은 아는 사실이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먹던 자장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슷한 모양은 있더라도 맛은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람은 중국여행 중에 우연히 한국에서 먹던 자장면을 먹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한다. 결국 한국 사람이 중국 현지에 가서 중국여행을 온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식 자장면을 팔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자장면이 한국에 와서는 국적불명의 자장면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중국요리는 짧은 시간에 기름으로 튀기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중국음식은 느끼하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러나 중국요리에도 담백한 요리가 무수히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요리에는 정형화된 형식이나 틀이 없다. 이런 점은 한국음식과 일본음식, 프랑스와 이태리 음식, 남미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음식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면, 그에 따른 조리법도 달라졌음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그에 따른 음식예절과 식사예절, 매너 등도 끊임없이 변해왔을 것이다. 단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크게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요리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이념 아래 ‘전통(傳統)’이라는 이름으로 날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류의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맛있는 음식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맛있는 음식만 살아남아 왔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과격한 국수주의자(國粹主義者)나 독재자도 맛있는 외국의 음식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자국의 전통요리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문화권의 음식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은 유사 이래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맛있는 음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가깝다. 음식은 변할 수밖에 없다. 특정 의식행사나 의식절차에서 먹는 극소수의 음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요리와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있는 것만 살아남기 마련이다. 그야말로 음식의 적자생존인 것이다.

새로운 음식의 전파는  
 동시에 새로운 음식문화의 전파를 의미한다.  
 따라서 언제나 초기단계에는 일부 계층들만이  
 일종의 새로운 고급 음식문화를 향유하기 마련이다.



## 영어선생님과 돈가스

필자가 1980년대 고등학생 때 영어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다. 당시 영어선생님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마 1970년대 초였을 것이다. 영어선생님은 고(高)씨 성을 가진 제주도 출신이었다. 선생님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음식으로 주목을 받던 돈가스를 먹으러 모처럼 시내에 갔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상당한 돈을 준비해서 친구 몇 명과 함께 큰 맘 먹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를 시켰다. 낯선 분위기에 주눅이 든 일행은 주문을 받는 웨이터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얼떨결에 주문을 마친 일행은 처음 나오는 스프를 5초도 안되어 다 먹고 얼마간 기다렸다. 그런데 괜히 음식을 다 먹고 그냥 앉아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성급히 계산하고 나왔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1970년대에 고급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사먹는 것은 시골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흥분되고 긴장되는 일이었다. 이런 해프닝은 생소한 음식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부족의 결과였다. 이처럼 새로운 음식의 전파는 동시에 새로운 음식문화의 전파를 의미한다. 따라서 언제나 초기단계에는 일부 계층들만이 일종의 새로운 고급 음식문화를 향유하기 마련이다.

## 『논어(論語)』 속 음식 이야기

중국 고전을 읽다보면, 정치나 도덕 등에 관한 성현(聖賢)들의 이야기는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볼 수가 없다. 소위 동양고전을 대표하는 사서오경(四書五經)<sup>1)</sup>을 보더라도 만두<sup>2)</sup>, 국수, 면(麵)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한 음식의 맛이나 조리법 등을 기록하는 일은 거의 없다. 『논어(論語)』의 경우를 보자.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재아(宰我)가 물었다. “사람들은 보통 3년 상(喪)을 말하는데 1년도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악(禮樂)을 행하지 않으면 예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곡식도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두고, 딸감도 봄에 난 것을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1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쌀밥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

재아가 대답했다. “편안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네가 편안하면 그렇게 해라. 군자가 부모님의 상(喪)을 치를 때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고, 즐거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해라.”

재아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가 말했다. “재아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서 적어도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3년 상(喪)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것인데, 재아는 과연 3년의 부모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sup>3)</sup>

공자의 제자 재아는 당시 3년 상(喪)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공자에게 자연의 이치가 1년을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3년도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자는 이러한 제안을 하는 재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즉 공자는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한 3년 정도 부모님의 절대적인 보호아래 자란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공자에게 있어서 3년 상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도리였다. 이 때문에 재아에게 1년 상으로 줄여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지를 다시 물은 것이다. 재아가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공자는 재아에게 1년 상을 허락한다.

1) 중국 유가(儒家)의 기본적 경전(經典)의 총칭으로서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등 사서(四書)와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예기(禮記)』, 『춘추(春秋)』 등 오경(五經)을 가리킨다.

2) 만두(饅頭): 밀가루에 효모를 넣은 반죽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음식으로서 한국의 소가 없는 찰빵과 비슷하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만두라고 하면,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만든 만두피에 갖은 양념과 돼지고기 등을 넣어 만든 것이지만, 만두의 본고장 중국에서는 짜오즈(餃子) 혹은 바오즈(飽子)라고 한다.

3) 『論語』『陽貨』: 宰我問三年之喪, 期已久矣. 君子三年不爲禮, 禮必壞, 三年不爲樂, 樂必崩, 舊穀既沒, 新穀既升, 鑽燧改火, 期可已矣. 子曰 食夫稻, 衣夫錦, 於女安乎. 曰 安, 女安則爲之.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故, 不爲也, 今女安則爲之. 宰我出, 子曰 子之不仁也,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夫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子也 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동양고전을 대표하는 논어에서 공자는 쌀밥에 비유해 마음의 편안을 물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1년 상에 대한 허락이 아니라 재아에 대한 포기선언에 가깝다. 이미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저 형식적으로 3년 상을 치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쌀밥과 비단이다.

## 음식에 내재된 욕망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조건을 이야기 할 때 흔히 의식주(衣食住)를 말한다. 이 중에서 특히 옷과 음식은 인간의 욕망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옷과 음식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인간의 욕망과 직결된 것일까? 동양고전에서는 음식이라고 말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선비로서 도(道)에 뜻을 두면서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더불어 큰일을 의논할 수 없다.”<sup>4)</sup> 도(道)는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나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고차원적인 이치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좋지

4) 『論語』「里仁」：子曰 士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未足與議也.

못한 옷과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시기에 옷과 음식처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때문에 도(道)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공자는 이런 사람과는 결코 상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공자의 눈으로 볼 때, 옷과 음식은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는 통로이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극복·초월하지도 못하면서 큰 뜻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자는 음식에 내재된 인간의 욕망을 보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내면을 돌보지 않으면 덕(德)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sup>5)</sup> 이 말은 식욕과 같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만 골몰하고 마음수양을 게을리 한다면, 결코 덕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결국 음식은 인간 욕망의 결정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음식에 내재된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자는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간하는 방법으로 바로 음식에 내재된 욕망을 보았다.

설날이나 한가위 같은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보고 과식을 해서 한 번쯤 배탈이 난 적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두 번쯤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식욕(食慾)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그 밖의 다른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꿈과 잠자리가 편안하다.”<sup>6)</sup>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려면 기름진 음식을 피해 적당히 먹고, 좋은 꿈을 꾸려면 마음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욕망의 조절이 심신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말이다.

‘음식(飲食)’이라는 단어에서 ‘마신다’는 뜻의 음(飲)은 밥 식(食)과 하품 흠(欠)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음식을 보고 하품하듯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다는 뜻에서 ‘마시다’라는 의미가 나왔다. 갑골문(甲骨文)에 보면, 음(飲)자는 술통에 머리를 들이밀고 술을 마시는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식(食)은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이처럼 음식이란 글자 역시 자기 욕망의 충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해 보자. 나는 지금 식욕(食慾)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혹시 음식에 내재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5) 『論語』「陽貨」：子曰 飽食終日，無所用心，難矣哉。

6) 『明心寶鑑』「正己」：景行錄曰 食淡精神爽，心清夢寐安。